


<h1>보도자료</h1>	보도일시	2020. 5. 13.(수) 11:00	 <b>통계청</b>
	배포일시	2020. 5. 13.(수) 08:00	
	담당부서	조사관리국 인구총조사과	
	담당자	과 장: 정남수(042-481-3720) 사 무 관: 경은숙(042-481-3738)	

##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 위촉식 및 자문회의 개최

- 인구주택총조사 수행 및 결과활용에 전문가 그룹의 의견 적극 반영 -

- 통계청(청장 강신욱)은 5월 13일(수) 대전 롯데시티호텔에서 2020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 위촉식을 갖고 첫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였다.
- 올해 11월에 실시하는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개최 방안에 관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통계청은 학계와 연구기관을 포함한 각계의 전문가 2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.
- 이날 행사에서는 통계청장의 개회사와 위촉식에 이어 첫 자문 위원회가 열려 2020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수행과 향후 조사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위원들의 자문과 토론이 이어졌다.
- 다양한 의제에 대한 정책수요의 증가와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반영해 통계청은 2020 인구주택총조사에 전자조사 방식을 전면 도입하고 행정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국민의 응답부담을 최소화 하면서 품질 높은 통계자료를 생산할 계획이다.
-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항목은 안전, 환경, 활동제약돌봄 등 7개 신규항목을 포함하여 총 56개로, 이 중 11개 항목은 행정 자료로 대체하고 실제로는 45개 항목만 현장조사를 실시해 국민 응답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.

- 조사방식에 있어서는 비대면조사를 선호하는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인터넷조사를 PC에서 모바일까지 확대하고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응답자는 전화로 응답할 수 있도록 콜센터의 기능을 확충할 계획이다.
- 한편, 올해 인구주택총조사에서는 태블릿PC로 면접조사를 하게 되므로 지리정보기술이 반영된 전자지도의 활용이 가능하여 조사원이 조사대상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조사대상처의 중복이나 누락도 방지해 통계생산의 효율성과 정확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'종이없는 조사(paperless Census)'로 자원의 절약과 환경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.
- 통계청은 이번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자료의 공표도 전주기 대비 3개월 앞당겨 2021년 9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다.
- 강신욱 통계청장은 '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 삶의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'라며 '조사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데이터로, 나와 이웃을 위한 정책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해 많은 국민이 인구주택총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참여해주시기를 바란다'고 말했다.


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동 자료는 '출처 표시'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.